



어제의 곤약닭가슴살김밥에 이어 GS25 '칼로리라인업' 나머지 3종 중 하나인 두부면샐러드파스타에 도전해봤다.

마라탕에 두부 관련된 건 뭉땅 때려넣는 두부 귀신 입장에서 이걸 참을 수가 없었다.

233g, 290kcal에 4,300원.

매콤로제치킨파스타와 똑같은 가격에 칼로리는 3분의 1인데, 과연 맛은 같은 값을 할 것인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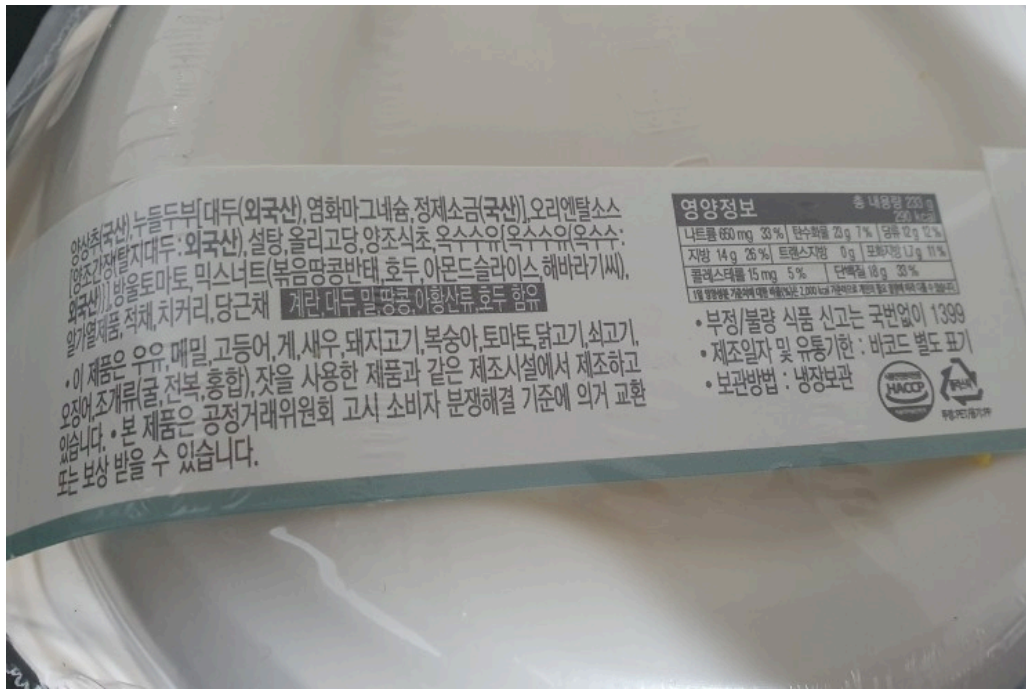


GS25 매콤로제치킨파스타

안 먹어봐도 맛있을 비주얼이다. 물론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는다. 포장지만...

blog.naver.com

위쪽에 주요 원재료명과 함량이 적혀있긴 한데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 있다.



대충 건강한 것 잔뜩 들어갔다는 뜻
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거지~

오리엔탈소스 때문인지 나트륨 함량은 650mg으로 적지 않다.

나트륨 조절이 필요하면 소스를 적당량 부어야 할 듯!

물론 나는 다 붓는다 ㅎㅎ 이라서 얼굴도 붓는다 ㅎㅎ...



방울토마토 눈, 당근채 코, 치커리 잎...인데 대실때
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뭐다?

맛은 정말 괜찮았다.

샐러드는 아삭아삭하니 신선한 상태였고 믹스넛과 두부면의 맛, 식감과 잘 어울렸다.

사실 재료도 그렇게 파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지만 맛있으니 됐다.

샐러드 먹고 싶을 때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.



후식으로는 강릉초당순두부우유. 이것도 신상인 듯.

초당순두부페이스트와 두부향, 바닐라향 합성향료가 일반 우유, 두유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보인다.

엄청 달지 않은 가벼운 두유 맛이다. 요것도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맛.

왜 맛 설명이 짧을까? 사실 들고 오다 떨어뜨리고 절반 정도 쏟아서 그렇다.

한번 쪽 빠니까 사라졌다.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.